

세계기도정보

[이탈리아] 낙태법 개정...낙태 고려 여성에게 모성 지원
 [지부티] 난민선 전복으로 16명 사망·28명 실종
 [벨기에] 시장이 보수주의 컨퍼런스 강제 중단 시도...대법원 판결로 극적 재개
 [소말리아] 소말리아 기독교인, 신앙 이유로 박해 받아...ICC, MBB 신자들 지원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들, 조력 자살 반대 입장 표명
 [스웨덴] 국민의 반대에도 성전환 문턱 더 낮추는 법안 표결
 [중국] 미국 하원 특위 “중국은 펜타닐 생산·수출에 보조금”
 [한국] 무슬림 유튜버, 인천 모스크 건축 추진 공개...주민 반발 예상
 [시리아] 시리아, 이슬람 세력 분쟁 13년...기독교인들 큰 고통 겪어
 [말리] 대선 조속 실시 요구에...정당활동 이어 정치보도까지 금지
 [미얀마] ‘내전 열세’ 미얀마 군부, 7년 전 학살했던 로힝야족 징집 나서
 [시에라리온] 인골 함유 환각제로 국가비상사태...대통령 마약 퇴치 지시

선교후원

현황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2024. 4
멕시코에서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공홀의 하나님(쿠바, 까마웨이)!

3월 17일 주일,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지 교회를 방문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제자들을 지역교회에 보내고 나는 숙소에서 머물렀다. 나는 언제나 나로 인해 혹시나 현지 교회와 목사들이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한다. 설교하지 말라는 이민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쿠바를 떠나기 전 오늘 오후는 전국에서 모여든 약 30여 명의 농가 리더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린다. 이 자리만큼은 나를 대신해 누군가를 보낼 수 없다.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어서 전혀 우리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주일 오후 엘리오 목사 교회로 설교를 떠났던 호세 목사가 엘리오 목사와 함께 돌아왔다. 한때 의사였던 그는 풍이와 지금은 목회에만 전념한다. 그를 위해 준비한 약을 전달하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다음에 이곳에 오시면 이곳 여인숙(까사-국가 공인 숙소)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저희 새집에 머무세요. 제 친구가 쿠바를 떠나면서 그가 운영하던 여인숙(까사)을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사용하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곳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미국으로 떠난 가족들도 저의 건강을 걱정해서 저에게 계속 미국으로 오라고 하지만,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곳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풍이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누군가는 요동치고 떠내려간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시간을 통해 증명한다. 이제 9월이면 101명의 목회자에게 약속한 나의 약속을 지키는 달이다. 첫 번째 러브 쿠바가 꼭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10월부터 진행될 두 번째 러브 쿠바는 이제까지 주어진 현금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낸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그의 종을 충성으로 평가하시고, 그의 충성된 종들을 축복하신다.

하나에 열을(멕시코, 메리다)..

4월 20일 토요일, 메리다의 호르헤 목사로부터 사진들과 영상이 나에게 도착한다. 오늘은 그의 교회가 선교지로 정한 곳에서 첫 번째 전도행사를 하는 날이다. 지난 만남에서 그는 말했다: “목사님 저희가 선교지역으로 정해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곳에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월 교사 세미나를 통해 배운 것을 저희가 잘 응용해서, 그곳 어린이들을 일차 대상으로 삼고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의 말처럼 나에게 보내온 영상에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우리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그리고 더 잘 준비해서 현지에 적용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너무 감사하다. 6월 8일은 호르헤 목사 교회와 미겔 목사 교회가 연합해서 지역 교회들을 초청해 2월에 배운 것에 자신들의 경험을 더해 주일학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겔 목사는 자신의 훈련된 교사들과 쿠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양육을 위해 쿠바로 보내고 싶어 한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선교의 대상이었던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꿈을 꾸며 변화되어 가는 이들을 보며 감사하다.

5월 마지막 주에 나는 한 달의 일정으로 메리다로 들어간다. 6월 첫 주에 있을 2차 교사 세미나를 돕고, 또 1차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들을 방문해 그들을 격려하고 1차 세미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매주 월요일 저녁은 제자반이 있는 날이다. 여러 명이 제자 훈련에 참여했지만, 지금 단 한 명만이 남아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멕시코 쓰갈로 광장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멕시코에서 나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 같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쿠바가 그렇다. 내가 들어가 있는 동안 쿠바 곳곳에서 대규모 데모가 발생했다. 지금도 곳곳에서 데모가 진행 중이다. 하루 12~15시간 정전 속에서 모든 사회가 멈추니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같이 보인다. 그리고 그 속에 교회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일을 나의 꿈보다 더 우선시하신 것 같다. 그러나 한 선배 선교사님께서 나에게 말한다: “선교사님, 페루 아마존 지역에 사역하는 지역 목회자들이 매 6개월마다 한 달 동안 한 곳에 모여 6개월 치 설교를 배우고 가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그들을 섬겨주실 수 있을지요? 가능하다면 1년 치 설교할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또 한 선교단체로부터 연락이 왔다: “선교사님, 이곳 멕시코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돕고 싶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섬겨주십시오.” 쿠바 사역과 달리 이 일들은 내가 계획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다. 또 내가 원하는 사역도 아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는 이 사역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 사역을 섬기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섬김..

3월 30일 수요일, 쿠바에서 돌아와 바로 마지막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포틀랜드로 떠났다. 선교사라는 이유 하나로 나를 섬겨주시는 장로님, 선교사라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시는 선배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이유 하나로 무거운 강대상 자리를 비워 주시는 목사님.. 모든 것이 감사하다. 갑자기 나에게 연락해 눈을 검사하고 녹내장 치료를 시작하게 해 준 자매님.. 이 분들의 섬김은 나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이고 하나 지체이기 때문이다. 아마존 사역과 타 단체의 요청을 두고 불편해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 분들의 섬김을 통해 말씀하신다: “천석아, 한 몸인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지!”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새로운 처소가 6월안에 찾아지길(멕시코 행복한 교회들을 위해).
2. 생필품과 의약품이 없어 신음하는 쿠바 교회를 공홀히 여기시고, 쿠바 교회들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3. 이어지는 5월 제자반과 세미나 사역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향한 결단이 드러나길.